국제섬유신문

THE INTERNATIONAL TEXTILE NEWS

2014년 6월 2일(월요일) 제 1006호

대표전화 (02)564-2260
www.itnk.co.kr

섬유·패션업계의 노벨상

'2014 三憂堂 대한민국 섬유·패션 大賞'

영예의 수상자 17명 선정

2일 섬유센터 대회의실서 시상식, 상패·순금메달 수여

성기학 회장

이의열 회장

전순옥 국회의원

김윤식 회장

문주종 회장

김명한 회장

한상우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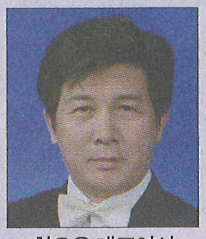
한두흠 이사장

이정민 대표이사

신장경 대표

박윤수 회장

손병륭 대표


최요우 대표이사

임승윤 원장

정인한 회장

이청청 대표

김성호 이사

본지 주최 명실공히 우리나라 섬유·패션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2014 三憂堂 대한민국 섬유·패션 大賞' 수상자 17명이 최종 선정돼 6월 2일 오후 3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성대한 시상식이 개최된다. '삼우당'은 고려말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목숨을 걸고 목화씨를 들여와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효시이자 의류혁명을 일으킨 충신 문익점 선생의 아호로 본지가 지난 1994년 창간 1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이래 올해 21회째 엄수되고 있다.

섬유·패션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三憂堂 섬유·패션大賞'은 대한민국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회사 및 개인 또는 전임 고위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섬유·패션산업의 노벨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제21회 삼우당 대한민국 섬유패션 大賞' 영예의 대상은 '수출·내수 종합대상'으로 성기학 (주)영원무역·(주)영원아웃도어 회장이 선정됐다.

특별대상은 이의열 (주)덕우실업-대구경북섬산련 회장에게 돌아갔다.

또한 특별공로상엔 전순옥 국회의원과 김윤식(주) 신동에너콤 회장이 각각 영광을 안았다.

문주종 (주)대일섬유 회장 등 13명은 창조경영大賞 부문별 수상자로 선정돼 이날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삼우당 大賞에 선정된 17명 전원에게는 상패와 순금메달이 수여된다. 〈수상자 프로필 6,7,10,11,12면〉

심사위원

위원장 노희찬 회장

최병오 회장

원대연 회장

조영일 본지발행인